

제 1 회 아세안—중국—걸프협력회의 정상회의 개최

안와르 : 중국의 협력 공헌 극찬

5월 27일 오후, 제 1 회 동남아시아 국가가련맹 (아세안) 회원국, 중화 인민공화국과 걸프 (海湾) 아랍국가 협력위원회 (걸프협력회의, 海合會) 회원국들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중국—걸프협력회의의 정상회의를 열었다. 말레이시아 총리 안와르는 개막식 축사에서 이는 최초로 열리는 아세안—중국—걸프협력회의의 3 차 정상회의로서 지역간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표칭하며 중요한 이정표적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와르는 아세안, 중국과 걸프협력회의의 총인구는 21 억명을 초과하고 경제총량은 25 조달러에 접근했으며 협력 전망은 밝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역간 발전에서 발휘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극찬하며 중국은 장기간 아세안의 믿음직한 협력동반자로서 상호 연결과 소통, 기술, 무역 등 분야에서의 쌍방의 협력은 지역 번영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국이 손잡고 더욱 높은 수준의 협력을 추진하고 다자주의와 포용적 성장, 평화, 안정, 지속가능 발전의 미래를 구축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는 3 차 사이의 상호 신뢰의 구현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남방 국가들을 위해 협력상생의 새로운 모범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아세안과 걸프협력회의의 국가는 모



5월 25일 오전, 광서좡족자치구 방성항시 동흥통상구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육로, 수로, 해륙 (海陆) 으로 동남아시아와 통상하고 있는 동흥통상구는 2024년 출입국자수가 연인수로 858만 1,000명에 달해 전국 변경 (沿边) 통상구중 1위를 차지했다. / 광서신문넷

두 아시아 신흥경제국과 전세계 남방 국가의 중요한 성원이며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기도 하다. 중국은 아세안, 걸프협력회의의 국가와 각 분야에서의 실무협력을 확장하고 우세의 상호보완, 호혜상생을 실현하며 다자무역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전세계 남방 국가의 공동 이익을 수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은 모두 전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경제체이다. 중

국은 세계 2위, 아세안은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의 뒤를 잇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은 경제무역 관계가 밀접한바 2024년까지 쌍방은 연속 5년간 서로의 최대 무역파트너로서 아세안과의 무역액은 중국 대외무역 총액의 15.9%를 차지한다. 5월 20일, 쌍방은 중국—아세안 자유무역구 3.0 버전 협상을 전면적으로 완수하였다고 공동으로 선포했다.

걸프협력회의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주장국,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이 포함돼있어 경제력도 만만치 않다. 걸프협력회의의 국가의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은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하며 1인당 국내총생산 (GDP) 은 전세계 수준의 3배에 달한다.

회의는 〈아세안—중국—걸프협력회의의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 중앙텔레비죤방송넷

중국 과학자 왕소운

2025년 ‘세계걸출녀과학자상’ 수상

유네스코 (联合国教科文组织) 는 5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과학자 왕소운 (王小云) 을 포함한 5명이 2025년 ‘로레알—유네스코 세계 걸출녀과학자상’을 수상했는데 이는 물리, 수학,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의 그녀들의 획기적인 공헌을 표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보에 따르면 청화대학 고등연구원 ‘양진녕강좌’ 교수 왕소운은 암호학 및 관련 수학 문제 분야에서 중대한 연구 성과를 이루어 안전한 데이터 통신과 저장을 위해 튼튼한 보장을 제공했다. 그녀의 획기적인 연구는 통신협의 (协议) 에 널리 사용되는 해시 (哈希) 함수의 근본적인 허점을 드러냈으며 차세대 해시함수 표준의 제정을 촉진했다. 오늘날 이러한 표준은 은행카드, 컴퓨터 비밀번호,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녀의 혁신적인 연구 성과는 많은 여성들이 수학 및 네트워크 보안 연구에 참여하도록 격려했다



웃줄 왼쪽으로부터 마리아 테레사 도바, 프리실라 베이커, 클라우디아 페르제; 아래줄 왼쪽으로부터 바바라 핀레이슨·피츠, 왕소운.

있다.

나머지 4명의 수상자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웨스턴케이프대학 화학학부 교수 프리실라 베이커, 독일 막스 플

랑크 고체화학물리연구소 소장 클라우디아 페르제, 아르헨티나 라플라타 국립대학 정밀과학원 물리학부 교수 마리아 테레사 도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오웬캠퍼스 화학학부 명예퇴직 교수 바바라 핀레이슨·피츠이다. 이 수상자들은 독립국제심사위원회가 전세계 466명의 후보자중에서 선정한 것이다.

공보는 수상자들은 과학 분야에서 여성의 깊은 영향을 공동으로 보여 주었으며 그녀들이 수행한 뛰어난 연구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게 했으며 특히 젊은 여성들이 지식과 혁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돌파하도록 격려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6월 12일 빠르게 위치한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계걸출녀과학자상’은 유네스코와 프랑스 로레알 (欧莱雅) 기금회가 1998년에 연합하여 설립한 것으로 매년 아프리카와 아랍국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럽,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지역, 북아메리카 등 5개 지역에서 선정된 5명의 여성 과학자에게 수여된다. / 인민넷-조문판

조선 외무성 :

‘골든 돔’ 미사일 방위체계는 미국 패권 유지 목적

조선 외무성 미국연구소는 5월 26일 비망록을 발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골든 돔’ 미사일 방위체계는 ‘미국우선주의’의 전형적인 산물로서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 방위체계 구축은 미국이 적대시하는 핵보유국들의 전략적 안전을 위협하고 미군의 공격적인 군사력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월 27일 전했다.

비망록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저들의 패권 지향적인 우주 군비 증강 책동을 정당화하고 ‘본토방위’의 간판 뒤에서 우주군사화를 가속적으로 완성함으로써 전방위적 영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선제적으로 점유하고 그에 의거하여 적수국들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마음 먹은 대로 개시하는 것이 바로 미국이 추구하는 군사 전략적 목표이며 현 미국정부가 최우선시하고 있는 ‘골든 돔’ 계획의 기본 목적이다. / 신화넷

비망록은 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전략적 적수국들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북아메리카대륙을 방어한다는 목표를 내건 ‘골든 돔’ 미사일 방위체계 구상은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비책’이 아니라 미국의 일극지배 전략을 우주 기반 군사 하부구조의 선제적 구축으로써 뒷받침하는 우주 핵전쟁 각본이다.

비망록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 방위체계 수립 구상은 핵보유국들의 안전상 우려를 자극하여 전지구적인 핵 및 우주 군비 경쟁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우주를 잠재적인 핵전쟁마당으로 전변시키는 화근이다.

비망록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미국의 로골화되고 있는 우주 군사화 책동으로 말미암아 전 지구적 안전 환경은 각일각 불확실해지고 있다. / 신화넷

조선 법기관

새 구축함 진수 사고 중대 책임자 구속

조선 법기관은 사고조사조의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새 구축함 진수 ‘중대 사고’ 발생에 커다란 책임이 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부부장 리형선을 소환하여 구속하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월 26일 전했다.

구축함 진수 사고 조사조는 5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당일의 사업 정형을 보고하였으며 전문가팀의 기술적 지도하에 관계 부문에서는 사고가 난 구축함의 균형성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작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는 전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이 새로 건조한 5,000 톤급 구축함이 5월 21일 청진조선소에서 진수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선은 바로 조사조를 구성하여 사고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벌였다. 청진조선소 지배인 홍길호, 총기사장 강정철, 선체 총조립작업직장 직장장 한경학, 행정 부지배인 김용학이 구속되었다. / 신화넷

조선과 로씨야 당국자, 같은 날 상호 방문

5월 26일, 조선 국가보위상 리창대 일행이 로씨야에서 열리는 제 13차 안보사무 고위대표 국제회의 참석차 평양을 출발했다. / 인민넷

같은 날, 로씨야 내무부 부부장 비탈리 솔리카를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 내무부대표단도 평양에 도착해 방문을 시작했다. / 인민넷

이재명 :

남북 군사 직통전화 복원 추진

5월 26일, 한국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이 남북 군사 직통전화 등 남북 소통 경로 회복을 추진하고 긴장을 유발하는 행위를 상호 중단하며 호혜적인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은 당일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외교 안보 정책 관련 글에서 “조선반도 정세 완화와 비핵화 평화를 추구할 것”이라면서 “대조선 정책은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되는바

오직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은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무역파트너이자 조선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라며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표했다.

한국 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에 실시된다. 5월 10일 이재명은 대선 선거 후보로 공식 등록했다. / 신화넷

위법 혐의 주일 미군 여러명 체포돼

일본, ‘군기 잡기’ 요구

일본 관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는 5월 26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주일 미군 여러명이 법을 어긴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된 데 대해 미군의 이러한 행위는 현지 주민들에게 큰 불안을 야기한다면 군사적 군기를 잡아 류사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미국측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오кина와현 지사 다마키 대니는 이날 오кина와현 주민들의 불안감이 일상화되고 있어 극히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미군 고위층이 이를 인식하지 않는 한 상황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표했다.

일본방송협회에 따르면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주일 미군 4명이 오кина와현에서 음주운전, 타인 주택 불법 침입, 사적 부위 노출 등 위법행위 혐의로 체포됐다.

장기간 주일 미군의 범죄는 많이 발생했다. 오кина와현의 통계에 따르면 1972년부터 2023년까지 주일 미군 및 그 가족들이 오кина와에서 약 6,200건의 형사사건과 관련되었는데 그중에는 살인, 강간, 강도 등 악성 사건도 적지 않았다. / 신화넷

중국 관광객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에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 중앙텔레비죤방송넷

5월 26일 17시 35분, 자가용을 타고 유람하던 중국인 관광객 3명이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섬 체팔루에서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차량 앞쪽에 탔던 2명이 중상을 입고 현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그중 한명은 이날 21시께 숨졌고 다른 한명은 여전히 인근 병원에서 구조중이다. 뒤좌석에 탔던 1명은 경상을 입었다.

이탈리아 주재 중국대사관은 신고전화를 받은 후 빠른 시간내에 현장의 경찰측과 소통하고 외교부领事보호센터에 관련 상황을 보고함과 동시에领事보호 자원봉사자들을 연락하여 현장과 병원에서 작업을 전개하게 함으로써 제때에 필

요한 협조를 제공해주었다. 현재 대사관측은 상황을 면밀히 추적하는 한편 각측과의 소통을 유지하며 사상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있다.

2025년 5월 27일 오후, 한 중상자의 가족은 그의 아내가 6명의 친구와 함께 이탈리아를 관광하러 떠났다고 밝히면서 이해와 몇명의 친구는 모두 사천 사람이라고 전했다. 사고 당시 그의 안해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북경시간으로 27일 아침, 안해가 관광중 엄중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여전히 긴급 구조중에 있다는 소식을 대사관으로부터 접했다고 밝혔다. / 신화넷